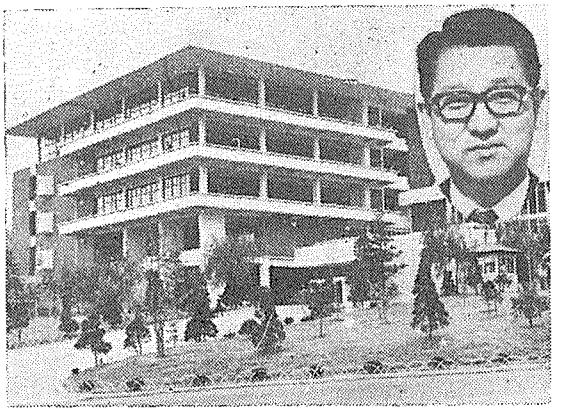
■순 방■

서울 特別 市立 南山 圖書館



(도서관 전경 원내는 최창균 관장)

우리 나라의 도서관사를 살피면 그 연원이 유구하며 또한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고 하겠지만 현대적 의미를 지닌 도서관이 서게 된 것은 1900년을 전후한 당시의 시대사조로 서구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화운동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서관은 문명과 불가분한 것으로 당시 개화문명을 부르짖는 선각자들이 현대문명을 담을 현대식 도서관을 경향에 설립하고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든 것이지만이 도서관사업이란 원래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재정난으로 그 유지경영에 많은 난관을 겪었든 것으로 여겨진다.

그후 일제가 침략하여 한민족을 억누르는 무단정치를 자행하였으나 우리 민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3·1 운동을 이르키고 민족의 독립의식은 갈수록 더욱 고조됨으로 그에 대한 유화책으로 문화 정책을 표방하여 그 정책의 일환으로 1920년을 전후하여 현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 인천, 대구등지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당도서관은 우리 나라에 현대적 도서관이 태동하든 1920년대에 창설하여 약 반세기의 세월을 우리 민족과 같이 숨 쉬어 온 것이다. 이제 당도서관의 개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 혁——

1922년 7월 1일 경성부 고시 제19호로 '경성부립도서관 규정을 제정하고 동년 10월 5일에 명동 2가 25번지의 구한성병원을 개수하여 개관 하였다.

1927년 5월에 명동에서 소공동 115번지의 대관정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여 이전하고 이어 신관 신축을 계획하여 익년 6월에 준공하였다. 대지 2,767 평에 철근 콩크리트 3층 건물로 총 건평 671평에 열람석 500석의 당시로 해서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현대적 시설이 었다.

1945년 12월 19일에 경성부립남대문도서관이라 개칭하였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특별시 승격으로 서울특별시립남대문 도서관이라 개칭하였다.

당관은 나날이 격증하는 열람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 확장을 꾀하여오던중 당시의 최창균관장의 노력과 서울시장 윤태일 장군의 용단으로 도서관 신축 계획이 수립되어 1963년 11월에 현 위치인 시내 용산구 후암동 30번지의 84에서 기공식을 올리고 1964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1965년 1월 27일 개관을 하였다. 대지 6,000평 건평 2,860평의 5층 건물에 현대 도서관으로서의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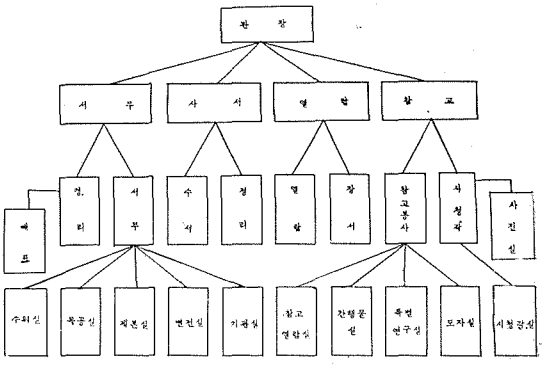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서울특별시립 남산도서관이라 개칭하였다.

——기구 및 직원 현황——

ㄱ. 기 구

당도서관의 기구조직은 관장아래에 서무 사서 열람 참고의 4개 계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하부의 기능은 아래표와 같다.

기 구 표



ㄴ. 직원

여기에서 한 가지 직원 실정에 대하여 언급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직 사서 확보의 애로점이다. 당도서관은 과거 10년래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 직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힘을 기우려 왔으며 유능한 사서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으나 근년에 와서 이 중견 사서들이 이탈하여 전직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명확한 것으로서 직원 대우에 있는 것이다. 다른 사설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국가 기관인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도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시립도서관이 겪고 있는 커다란 고민인 동시에 문제점인 것이다.

다음 도표는 당도서관의 직원 현황표이다.

직원 정·현원표

직종별 \ 인원	정원	현원	대비
3급 사서관	1	1	
3급 사서관보	1	1	
4급 행정주사	1	1	
4급 재경주사	1	1	
4급 사서	4	2	−2
4급 행정주사보	1	0	−1
4급 재경주사보	1	0	−1
4급 사서보	4	2	−2
4급 재경서기	1	0	−1
4급 사서서기	12	4	−8
4급 행정서기보	1	2	+1
4급 재경서기보	1	3	+2
4급 사서서기보	12	13	+1
공용원급 기능직	3	2	−1
공용원급 고용원	41	44	+3
잡급 보조수	19	15	−4
계	104	91	−13

기능별 직원 현황

기능별 \ 인원	직원수
서무계	11
사서계	12
열람계	20
참고계	17
기능직	2
노무직	29
계	91

남녀별 종사원 현황

직능 \ 남녀	남	여	계
사무직	28	32	60
기능직	2		2
노무직	20	9	29
계	50	41	91

——위치 및 시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명산, 남산은 교통 문화 시설면에서 그 면모가 나날이 변해가고 있다.

이 남산의 서남쪽 산 허리 아늑한 언덕위에 남산도서관이 설립만 해도 이 지역은 황량하기만 했었지만 이제는 교통이나 기타 문화시설과 미화작업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공원지대를 이루고 있다.

남쪽 멀리 유유히 구비쳐 흐르는 한강과 더 멀리 운애에 둘러 싸인 관악산을 굽어보는 이곳의 정경은, 한 발작 발 아래의 복잡한 서울 거리와 비교하여 이속의 감을 자아내게 한다.

도서관 이용자는 이 지역에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다른 한 시름을 개운히 씻어버리고 오직 공부하는 환경과 분위기 속에 접어드는 것이라 생각할적에 남산도서관의 위치를 누구도 탓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남산도서관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0번지의 84호이며 6,000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있다.

시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ㄱ. 건물 개요

주체구조; 지상 5층 철근콩크리트

1층 1995.08m²(630.5평)
2〃 1730.39〃 (523.5〃)
3〃 1805.15〃 (546.0평)
4〃 1626.36〃 (492.0〃)
5〃 1960.46〃 (593.0〃)
옥상탑층 145.85〃 (44.0〃)
옥상탑층 49.84〃 (15.0〃)
기 타 141.87〃 (43.0〃)
계 9455.0〃 (2860.0〃)

ㄴ. 봉사실 현황

일반열람실 2326.59m² (704.0평) 1368석
참고열람실 253.22m² (76.6평) 80석
정기간행물실 194.05〃 (58.3〃) 50〃
주부열람실 77.55〃 (23.5〃) 35〃
아동열람실 54.12〃 (16.4〃) 54〃
시청각실 96.85〃 (29.3〃) 70〃
특별연구실 165.29〃 (50.0〃) 90〃
강당 186.00〃 (56.3〃)150〃
식당 286.94〃 (86.8〃)300〃
계 3,640.61〃 (1,101.2〃)2,290〃

——자 료——

장서현황

류별 \ 종별	한서	양서	일서	계	비율
총류	3,315	641	10,919	14,875	14.7
철학	1,862	548	4,179	6,589	6.5
종교	531	306	4,424	5,261	5.0
사회과학	9,704	963	8,796	19,463	19.4
순수과학	1,502	841	4,430	6,773	6.7
기술과학	3,410	731	5,116	9,257	9.2

(22면에 계속)

하는 각종비용은 表에 제시한 每年修理費額을 초과치 말며 그 理由를 기록하여 議政府와 宮內府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본령은 光武2年 1月1日부터 시행한다.

위의 내용은 어느 것이나 종전까지 실시해온 史庫奉安規則에 대하여 成文化한 느낌도 없지 않으나 근대적인 법규로 고쳐진 것 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 법규로 인해서 史庫曝曬規定이 종전까지 10년에 한번씩이던 것이 이제부터는 3년마다 한번씩으로 바꾸어져서 고종이전의 포쇄규정으로 환원된 것 같기도 하나 꼭 3년마다 실시된 것은 아니였다. 당시는 國家事情이 外勢의 긴박감 때문에 특히 日帝侵略이 더욱 加重되어 3년마다 史庫曝曬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포쇄규정에 따라 2次年度인 光武7年에는 宮內府大臣 署理 尹定求의 上奏에 따라 秘書郎을 지낸 사람가운데서 2명을 특별히 선택하여 外方史庫의 실록을 포쇄케 하였는데[6] 이 때 포쇄가 끝난 다음 보고서를 본다면 五臺山史庫 太白山史庫 赤裳山史庫 鼎足山史庫 등에 대해서 각각 3日間씩 소요해서 포쇄를 끝내고 있다[7].

위의 규정에서 楊州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나 그 곳은 祖宗朝로부터 중요하게 여긴 때문이던가 또는 서울에 있는 春秋館史庫의 守慶寺刹로 된 때문으로 여겨진다.

史庫曝曬가 된 光武7년은 1903년으로 露日戰爭 1年前이란 긴박한 사태속에서도 문화재수호를 위한 행사가 끝났다. 이 때부터 3년인 1906년에 다시 포쇄가 행해졌다. 그 사이는 노·일전쟁, 을사조약, 통감부설치 등의 침략과 이를 물리치려는 義兵鬪爭등 국정이 소용돌이 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史庫曝曬는 春節에 실시케 하였다. 이 때 어느 정도나 자세히 포쇄가 되었는가 알 수 없으나 이는 우리 主權下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포쇄가 된 것이다.

또한 포쇄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때에 따라 달랐을 것이나 光武2년도의 일예를 본다면[9] 四部의 外史庫曝曬費用으로서 80元이 계산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새로운 법규 제정에 따라 史庫를 管轄하는 主務官署도 달라졌다. 즉 建陽2年(1897년)부터 議政府에서 관장케 하였는데[10] 종전까지 禮曹에서 관할하던 것과는 다르게 되었다. (次號繼續)

6) 高宗實錄, 光武7年(1903) 4月2日
7) 官報 第2478號, 光武7年4月4日
8) 官報 第3432號, 光武10年4月20日
9) 高宗實錄, 光武2年6月10日
10) 官報 第689號, 建陽2年7月15日

(29면에서 계속)

예 술	920	270	6,234	7,424	7.4
어 학	1,997	617	2,248	4,862	4.8
문 학	11,625	780	2,362	14,767	14.7
역 사	2,949	546	5,027	8,522	8.5
아 동	1,969			1,969	2
고 서	1,010			1,010	1
계	40,794	6,243	53,735	100,772	100
비 율	40.6	6.1	53.3	100	100

정기간행물은 국내 64종 외국 2종을 구입하고 있으며 국내 160종 외국 8종의 간행물을 기증 받고 있다.

신문은 국내 160종 외국 11종 총 171종을 수집하고 있다.

그외 시청각 자료로서 레코드 480매 스라이드 필름 60매 문화영화 필름 1권등이 있다.

——봉 사——

당도서관의 열람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고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다.

매월 10일은 정기 휴관을 하며 공휴일은 임시 휴관을 하고 있다,

도서관 봉사는 이용자에게 또는 사회교육면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걷우고 있는지는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나, 다만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 학생들이 스스로의 교육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지하게 학구에 열중한 모습을 볼때 도서관 봉사자로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당관은 폐가식이며 또한 관외대출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참고열람실과 정기간행물실은 완전 개가식으로 자유로이 열람 할 수 있다.

각 기능별 봉사면을 살피면 시청각교육실은 완전 방음시설이 되어 있으며 주 2회의 기록영화 또는 교육영화를 상영하며 슬라이드도 수시 상영 한다. 그리고 매일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음악 감상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16개의 개인 연구실에서는 사회인들의 연구 조사 또는 문필가들의 집필 활동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모자열람실은 아동열람실을 겸한 주부열람실로서 가정주부가 어린자녀들과 같이 와서 여가의 시간을 선용하도록 마련 하고 있다.

다음에 강당에서는 문화 강좌·강연회·세미너 또는 문화성을 띤 강습회장으로도 이용되며 미술 전시회를 열기도 하는데 지난 10월 20일 퇴계·다산선생의 동상 제막식 후 두 선생의 유품전시회를 가졌을 적에는 박대통령께서 관람하시는 영광을 갖기도 했다. (尙燁)